

II. 주요 정책 현안

1. 99년도 1차 IMF정책협의 내용과 시사점

□ IMF정책협의 주요 결과¹⁾

99년도 실질성장률 2% 등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전망. 저금리/통화 확대 정책 지속.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 지원 기조 유지

- 한국 경제의 회복세 전망

- IMF와 우리 정부는 99년도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실질 GDP 성장률이 2% 또는 그 이상에 달할 것으로 합의함
- 성장세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더욱 안정되어 당초 예상인 5%보다 안정된 3%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정확한 수치로 전망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가용외환보유고에 대한 수치 전망도 배제하여 외환 유동성 사정의 안정세 정착을 간접적으로 인정함

- 저금리/통화 확대 정책 지속

- 그동안 저금리 정책 기조가 경기 회복에 기여했음을 인정, 저금리 정책 기조의 유지에 합의
- 본원통화 증가 한도는 98년 1/4분기 합의에 따라 명시되지 않았으며 총유동성(M3)은 구속성 없는 전망치(99년 중 13%~14%)로 제시됨

-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 회복 지원

- 99년도 재정 적자의 對GDP 규모는 전년대비 1%p 증가한 5%로 설정하여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능력을 향상시킴
- 아울러 중기 재정지출 계획 수립시 IMF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재정 적자 누적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하도록 합의

1) 본 항목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99년 2월 2일)를 참조한 것임. 현재 IMF측과 재경부가 최종 문안의 수정 작업 중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내용은 합의 내용이 IMF 이사회에 배포되는 시점인 2월 중순 경 공개될 것임. 금번 협의 결과가 3월말 경 IMF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2.5억 달러의 지원금이 추가 인출되어 총 지원 예정액 210억 달러 중 192.5억 달러가 인출되게 됨(既 상환분 제외)

<IMF 정책협의의 결과 비교>

	98년 4/4분기 협의	99년 1차 협의
실질성장률	99년 “플러스” 성장	99년 2% 성장
물가	5%	3% 내외
경상수지	200억 달러 흑자	“상당한” 규모 흑자 지속
재정적자	GDP 대비 5% 적자	
본원통화	증가율 상한치 목표 설정 폐지	
총유동성	99년 중 13%~14% 증가 전망	
외환보유고	99년도에도 증가 지속	

□ 정책협의의 의미

경제 정책 수행의 실질적 독립성이 계속 유지되며 경기 부양이 최우선 과제로 인정됨. 정책협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전환하여 IMF체제 졸업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

- 정책 수행의 실질적인 독립성 유지

- 98년도 4/4분기 협의에 이어 통화 정책의 재량권이 계속 보장되고 있으며, 거시 경제 운용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고 “전망 합의” 또는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 제시”의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 부양이 정책 최우선 과제로 인정

-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통화공급 확대/재정 지출 확대가 거시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음. 특히 재정 지출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출에 초점을 맞춤

- IMF 졸업²⁾을 향한 첫 단계

- 98년 매 4분기별로 실시하던 정책 협의를 99년에는 반기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차기 정책 협의는 7월 중으로 예정됨
- 이는 IMF지원금 상환 개시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경제 회복 조짐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어 IMF에 의한 정책 통제가 불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反證함
- 따라서 IMF지원금의 상환 및 민간 부문에서의 외채 감축이 지속되고 실물 경제의 회복세가 可視化된다면 7월에 예정된 반기별 정책 협의를 계기로 “IMF 졸업”

2) “IMF 졸업”은 여러 가지 定義가 있음. 가장 廣義로는 경제 부문별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경제 체질의 선진화가 달성되고 5%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실질적으로 同意語임. 그러나 狹義로는 IMF지원자금의 상환이나 경제정책 협의의 종료를 의미함. IMF는 지원국의 경제 상황이 제 3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되면 “졸업”을 인정하고 있음. 멕시코의 경우 94년 12월 IMF체제에 들어가 96년 6월 IMF체제를 졸업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76년 9월에 IMF 체제에 들어가 77년 9월 IMF 체제를 졸업하였음

을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경제 정책 방향

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도록 하는 정책 처방이 필요함. 아울러 구조조정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함. 외환보유고와 외채 상환간의 균형잡힌 외환 정책도 필요함

- 경기 부양의 가시화

-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인 여건이 조성된 만큼 경기 부양의 가시화, 또는 체감 경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함. 최근 발표된 산업생산지표 동향과 관련해서도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음. 특히 재고 조절, 경기 지표의 기술적인 반등과 같은 지표 해석 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이하의 소비지출 증가와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이 시급. 특히 소비지출의 景氣後行的인 성격과 실업 증가를 감안할 때 家計의 恒常所得 증가에 의한 소비지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계대출의 증가, 실업 대책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가계에 단기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해야 함

- 구조조정의 장애요인 제거

- 빅딜과 관련한 고용승계 문제 및 3~4월 이후의 노사분규 가능성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정책 처방이 필요함. 특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퇴직 예정자들의 과도한 퇴직 위로금 요구는 자제되어야 함
- 기존 실업자 및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임시 조치로 인턴사원제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실업 증가가 사회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채 상환을 포함한 균형있는 외환 정책 필요

- 현재까지 IMF 지원금 28억 달러의 상환이 이루어졌으며 10억 달러 추가 상환이 예정되어 있음. 향후 공공부문 외채의 만기 도래시 외환보유고 목표 달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상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공공부문 외채 조기 상환과 민간 부문 외채의 축소 유도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IMF 早期卒業 및 외환시장내 적정 환율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조 홍 래 hrjo@hri.co.kr ☎724-4056)